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어린이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예수 사랑하심은(찬411/새563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찬 장로 2부/강현석 장로 3부/김연조 집사 4부/서윤지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예수께로 가면(편곡 김현철)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마태복음 19:13-15.....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5:16-32
- 말씀 Message1, 2, 3부..... Rev. Hong Sik Kim **김홍식 목사**

다시 풍선을 듭시다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4) 가장 영광스런 대관식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온 땅의 주인(Who Am I), 어린 아이처럼
- 헌금 특송(2부) Offering Song..... Hamin **꼬마 예배자 하민**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 *축도 Benediction Rev. Hong Sik Kim **김홍식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산소 같은 사람 One Who is Like Oxygen



김홍식 목사 / Rev. Hong Sik Kim

아직은 쌀쌀한 늦은 밤 큰아들을 교회에서 pick up 했습니다. 아들은 반갑게 인사하며 차에 타더니 창문을 열었습니다. 추운데 왜 창문을 여느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밀폐된 공간은 환기하지 않으면 점차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져서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람이 산소를 내뿜을 수 있다면 물에서도 화성에서도 살 수 있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쌀쌀하지만, fresh 한 밤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인간의 호흡은 밖에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인간의 모든 더러운 죄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타락하여 죄뿐인 인간은 모두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만 결국 모든 죄의 뿌리는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어떤 공기를 내뿜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산소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낙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죄뿐인 내 자신이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산소를 내뿜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정말 완벽한 창조의 질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메커니즘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산화탄소만 내뿜지만, 산소를 내뿜는 나무가 예수님처럼 고마웠습니다. 참으로 죄만 짓고 이산화탄소만 내뿜는 하찮고 나약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죄를 전적으로 안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시며 나에게 새 호흡을,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신 사랑이 어찌면 나무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 더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아는 자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 또한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시편 150:6)

These still chilly evenings I pick up my eldest son from church. One night, he greeted me warmly as he got in the car and soon thereafter opened the car window. When I asked why he was opening the window in this cold weather, he explained that if an enclosed space isn't ventilated, the oxygen decreases and the amount of carbon dioxide increases, making it feel stuffy. He then expressed his disappointment that if humans could exhale oxygen, they could live in water or even on Mars. Many thoughts crossed my mind, as I drove home that night, breathing in the chilly yet fresh night breezes.

Human respiration involves taking in oxygen and exhaling carbon dioxide from within. In like manner, the Bible speaks of human sinfulness being generated from within, not from without. Humanity, as fallen to sin and is likened as sin, seeks to blame it on everything and on everyone else. But eventually must come to acknowledge that the root of all sin lies within oneself. As I thought about this, I wondered what kind of air I was exhaling. As a minister, it was a serious question to consider. Is my heart and are my words and actions emitting carbon dioxide or producing life-giving oxygen that save souls? The more deeply I thought about this question, the more disappointed I became. All my words and actions have been revealing my sinfulness.

Then, I remembered the comforting presence of God. Not only did God create humans, but He also created trees that expire oxygen. This cannot be anything but God's perfect order of creation. In this way, God's Love and His message of salvation are implicit in all the mechanisms in the world. Although humans only exhale carbon dioxide, I was grateful for the trees that expire oxygen. Isn't this like Jesus? Truly, we are but weak and insignificant humans who only commit sin and exhale carbon dioxide. Yet, despite that, I recognized the love of Jesus Who came to this earth for us. He took on all my sins on the cross and in exchange gave me new breath and new life. This Love produces in me a new life; much like the life-giving tree.

In the presence of Jesus' unconditional love, once again, I am grateful and reminded that I cannot live a day without total dependence on the Lord. Those who now recognize this Grace must remember the Lord's Love each day with every breath they take. Now, in this moment, I praise the Lord Who gives me breath and grants me life. Hallelujah!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salm 150:6)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홍식 목사

다시 풍선을 듭시다

마태복음 19:13-15

1. 어릴적에 되고 싶었던 꿈을 나눠보세요.

2.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의미는?

1) 아이들은 () (창 1:29, 창 3:15, 창 12:2)

2) 아이들도 예수님의 () 필요하다(눅 23:28)

내가 아이의 신앙을 위해 미래를 위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 나눠봅시다.

3.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이유와 내가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나눠보세요(마 18:4,5/19:13)

내가 베델교회에 다음 세대가 예수님께 가게 하기 위해 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4.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벧전 2:2, 겔 36:26)

() ()

5. 내 자녀도 예수께서는 받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보세요.

■ 적용찬양: 온 땅의 주인(Who Am I), 어린 아이처럼

적용하기



교육부-영아부 예배

오늘은 어린이날! 예수님과 함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en)"(눅2:52)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기들이 2부(오전 9시), 3부(오전 11시)에 예배드리는 영아부를 소개 합니다. 본당 이층 엘리베이터 옆이 주일 아침이면 베델 교회에서 북적이는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와 요란하게 이별식을 마친 아이들은 선생님 손을 잡거나 안겨서 영아부 예배실에 들어오면 언제 울었느냐는 듯이 각자의 장난감을 찾아서 재미있게 놀니다. 끝이어서 clean up 노래가 나오면 모두 하나가 되어 장난감을 정리하고 앉아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어지는 즐거운 찬양이 나오면 너도 나도 앞으로 나아가 영아부의 찬양팀이 구성되어 찬양과 율동을 한답니다.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인 성경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엔 누가 모랄 것도 없이 두 손을 꼭 모아 기도 하는 모습에 늘 감동합니다. 시작되는 성경 말씀 시간에는 선생님과 도우미 학생 앞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전도사님을 바라보며 아기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요. 예배 후 활동으로는 그날 말씀에 맞게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크래프트를 진행합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베델교회 영아부의 주일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

시는 선생님들과 도우미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는 커다란 신앙나무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쁘게 아이들을 보내며 기도 합니다.

배민희 집사(교사)



전도폭발 사역팀



1. 전도폭발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도폭발은 1960년부터 시작된 기독교 사역으로 국제적으로 친교, 전도, 제자훈련, 건강한 교회 성장이란 사명 아래 현재 211개국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베델 교회에서는 현재 58차 전도폭발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훈련을 어떻게 하나요?

전도폭발은 3명이 1개 조로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으로 구성되어 1년에 2회 한 학기(15주)

동안 훈련수업과 병행하여 대상자를 찾아서 10번의 복음 제시를 하게 됩니다. 3명이 1조로 구성되어 훈련자가 동행하며 힘들지 않게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의 경험을 쌓아 복음 제시를 해야 하는 순간에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입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3. 감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복음 제시를 하는 가운데 결신하는 대상자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했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론 뜻밖의 장소에서 기대하지 못한 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 때 훈련받은 복음 제시를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고 복음 제시의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4.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 주세요.

훈련을 결심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까운 친구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라서 훈련에 참여하십니다. 전도폭발 훈련은 갑자기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뭐부터 말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다면 바로 훈련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훈련을 통해 제자가 되어가게 되고 훈련을 통해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배우게 됩니다.

■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영적인 평안을 주는 가족



'에쉐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팬더믹이 끝나가던 무렵 우리 가족이 베델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에쉐르 셀은 이름처럼 목사님과 셀 공동체 안에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처음 어바인이라는 도시로 오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어색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교회에서 주

일 예배의 기쁨과 더불어 교회에 오면 반갑게 인사 할 분들이 계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주일마다 만난다는 것이 새롭기도 하고 부담도 되었지만, 예배를 마친 후 함께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눔의 시간을 통해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나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

다. 언제나 차분하게 셀 원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셀 목사님 부부와 함께 고민도 이야기하고 기쁨도 나누는 셀 식구들과의 시간은 여전히 즐겁고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의 나눔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마음의 벽이 이곳 베델에서 그리고 셀 공동체 안에서 깨어지게

되었고 서로 나눌 때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플 때는 정성을 담은 음식을 소리 없이 문 앞에 두고 가시고, 김치를 담그셨다며 나눠주시는 셀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배려를 경험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셀 목사님 부부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셀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서로의 삶에 관심을 두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도해 주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셀 안에서 서로 나누고 영적인 복을 키워나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미옥 집사

베델선교 - 멕시코 일일 선교

설레게 하는 멕시코 일일 선교!

멕시코 선교팀 모집 광고를 봤을 때 바쁜 스케줄 때문에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가족 일때 저를 섬겨주셨던 집사님께서 권면하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준비모임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소개받고 그중 제가 가장 도움을 드릴만한 건설 사역에 지원하니 예상 청년분들과 같은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베델 교인이된 지 일 년이 안 되다 보니 70명 가까이 되는 팀원 중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또 대학 시절 매년 갔던 선교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스페인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모임 때 받았던 단어장을 보며 설레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전 팀장님이셨던 고장로님께서 혼자 온 저를 밴 운전석에 앉게 하셔서 운전하게 되었지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안전운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가본 적이 있던 멕시코였지만 국경을 넘는 순간 낯아 보이는 건물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탁한 공기와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선교 갈 때마다 항상 배우는 것은 예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사역에 속한 팀원들이 국경에서 예상치 못하게 오래 지체됐고 또, 그분들을 모시러 오기로 한 버스가 떠나버려 곤란에 처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대기 번호를 받고 의료 사역팀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무사히 도착하여 사역을 마쳤습니다. 저는 신학교 건설을 위한 벽돌 나르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덥고 힘든 일 중에 선교 사님이 사 주신 시원한 멕시코 콜라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멕시코 선교에서 제가 배운 것은 팔십에 가까우신 권사님들이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모습과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봉사를 위하여 와주신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오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언젠가 제 아이들과 그분들처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선교에 참여한 예상 청년분들을 통하여 성장하는 베델교회가 기대되었습니다.

박해송 성도

교육부 - 어린이 주일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영롱한 어린이들!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2층으로 계단을 오르며 예배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아기들을 만날 기쁨에 가슴이 콩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앞치마를 입고 큰 웃음으로 아기들을 맞이합니다. 가끔은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서 온 힘을 다해서 울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하셨듯 꼬옥 안아주면 어느새 멈춥니다. 입으로 따라 하지는 못하지만, 찬양에 맞춰 울동으로 콩콩 뛰며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아기들은 그 어떤 별보다도 빛납니다. 이제야 주님의 말씀을 조금 알 듯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눅 18:16)

강 영 집사(영아부 교사)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설교를 듣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가득한 아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영롱합니다. 5월은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특히 어린이날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잘 용서하며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오래 마음에 담지 않는 아이들의 심령을 닦고 싶은 계절입니다. 예수님도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티나 전도사(유아부)

밝게 웃는 얼굴로 어와나에서 외웠다는 요한복음 3:16을 암송하며 예수님이 구제주이심을 순

수하게 고백하는 아이. 평소에는 내 말을 듣고 있을까에 대해 의심할 만큼 조용하지만 배웠던 성경에 관해 물어볼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아이.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이시면 악은 어디서 왔냐는 심오한 질문으로 선생님을 배우게 만드는 아이. 매일 열심히 한 tinQTin 책을 포인트로 받으려 잊지 않고 매달 꼬박꼬박 갖고 와 보여주는 아이. 매주 주일날 이렇게 소그룹에서 성경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맑고 반짝이는 눈빛들을 마주할 때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 하리라 하시니라"(눅 18:17)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맑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는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의 자유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초등부 교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부모로서 그리고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며 궁극적으로는 함께 신앙을 키워 나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연말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하계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초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이들과 소그룹으로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매 주일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어린아이들을 부르시고 안아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베델의 성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며 또 받은 그 사

랑과 복음을 세상에 들고 나가 전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또 기대합니다.

이미옥 집사(초등부 교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성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교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살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육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파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준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튀르키예 현장 봉사자 모집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7.8 진도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각각 약 5만 명과 약 8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재민은 약 150만 명, 지진 피해자가 약 1,200만 명으로 참혹한 역사적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생존자들은 국제적인 긴급 구호팀이 철수한 이후 생필품과 임시 처소 부족, 질병, 영적, 정신적 트라우마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통해 진정한 이웃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죄의 사슬과 속임수에 빠져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속량 받아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이슬람권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라"(눅 10:34)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막 12:29-31) 하셨습니다. 2010년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을 계기로 중동 지역은 여러 차례 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으로 느껴지는 무슬림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고 주님 안에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튀르키예 지진 현장 방문 구제에 많은 자원하는 심령이 열리기를 기도 합니다.



- ▶ 기간: [1차] 5월 22일(월)-31일 (수), [2차] 8월 7일(월)-16일(수), [3차] 9월 11일(월)-20일(수)
- ▶ 참가비: 개인당 하루 \$50-70(국제/국내 항공비, 여행비자, 여행자 보험 제외)
지역과 사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모집 인원: 각 기간(1차, 2차, 3차)당 18명으로 제한(열악한 상황으로 자매 참석은 30% 이하로 제한 합니다.)
- ▶ 등록 안내: 본당 앞 코트야드, 베델교회 홈페이지 bkc.org
- ▶ 주최/문의: SWM 실크웨이브/프로젝트 명칭 CES,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월)	5/14:	①부-김귀성	②부-김세진	③부-김수열	④부-윤제니퍼
	5/21:	①부-김명수	②부-김양환	③부-김재훈	④부-이병천
	5/28:	①부-여홍평	②부-김백열	③부-김종현	④부-박제인

헬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6월) | 5/13: 김건중 5/20: 김기주 5/27: 강영재 6/3: 김동균

강단꽃(5월) | 5/7: 곽연자, 김성희, 김인규, 황은아 5/14: 박관규, 박세환, 선상균, 이서원 5/21: 이승대, 임명신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한우광(한외과), 간호사-김선미 다음주 | 의사-오미숙(한외과), 간호사-김현옥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외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버나버(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외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오늘은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 작성 헌금(매월 첫째 주일)-노란색 봉투로!

오늘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성하신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베델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전 10시, 이충경 목사의 '믿음과 의심 사이' 시리즈의 말씀으로 들려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모두 나오셔서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오늘부터 가족(Let's be family)'을 위한 펀드레이징

'오늘부터 가족' 프로젝트는 사단법인 야나(yana)와의 협력으로 한국 보육시설(강남 드림빌)에서 지내고 있는 아동을 VBS 기간(6월 17일-25일)에 초청하여 우리 교회 가정과 1:1로 연결, 홈스테이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온전한 가정에서 지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한 펀드레이징에 많은 참여와 사역을 위한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신간 구입 안내

십계명은 오늘을 사는 지혜요, 내일을 내다보는 로드맵이며, 성도의 삶을 그리는 블루프린트입니다. 김한요 목사의 신간 '잊혀진 지혜 『인생의 블루프린트 십계명』'의 출판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카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선교팀 모집

- ① 우간다: 건물 페인팅, 장애우 섬김, 의료, 사진, 결혼식 섬김 등의 사역
일정/문의: 6월 12일(월)-21일(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② BAM 전문인 선교: 터키 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이스탄불에서의 컵밥 비즈니스 사역
상호 - Popup Korean Restaurant(메뉴: 컵밥-불고기/떡갈비/닭고기)
일정/문의: 5월 29일(월)-6월 5일(월), 박지학 집사 (217)390-4107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2부, 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K-5 VBS 크루 리더(Crew leader) 모인

오늘(7일)부터 매주 주일마다 VBS 프로그램 및 데코 준비 작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니 이번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K-5 VBS 교사 및 TA
일시/장소: 5월 7일(주일) 오후 12시 40분, 체육관

◆교회학교 VBS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2023 VBS를 위한 교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VBS 진행을 위하여 중고등부 TA를 포함하여 어른 교사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사 지원 링크는 각 부서 전도사에게 받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문의: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유아부] 정티나 전도사 (213)407-5239
[K-1]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유년부]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교회 홈페이지(www.bkc.org)

◆BYM "Re-Kindled" Youth 연합예배

다음 주 금요일 얼바인 사랑의교회, 온누리 교회, 디사이플교회 등이 함께 모여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얼바인 지역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 얼바인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시/장소: 5월 12일(금),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BGC(영어 교회) 일본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

베델의 영어권 교회, Bethel Grace Church에서 일본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2부와 3부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보바를 판매하오니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사진 촬영

다음 주(14일) 어버이 주일에 코트야드 포토존에서 부부 및 가족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기념사진을 남기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3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베델한국학교 가을 학기 등록이 시작됩니다. 등록 기간이 끝나기 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등록해 주세요.

등록 기간: 5월 6일(토)-6월 4일(주일)

등록 사이트: school.bkc.org

학기 일정: 8월 26일-12월 16일(16주 과정, 11월 25일 휴강) 오전 9시-오후 12시 30분
학비: \$320(교재 및 간식 제공)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koreanschool.bkc.org

◆위로해 주세요.

故 김남근 성도님(김대웅 집사의 부친, 전정화 집사의 시부)께서 지난 4월 2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효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Let's lift the balloon again

Matthew 19:13-15

1. Share what your dream was when you were a child.

Apply to Life



2. Jesus placed His hands on little children and blessed them. What does this mean?

1) Children are () (Gen 1:29, 3:15, 12:2)

2) Children also need Jesus' () (Luke 23:28)

Set up a time when you would cry out and pray for the faith of your children and share it.

3. Why did the disciples of Jesus rebuke the children coming to Jesus? Share if there's anything that hinders children coming to Jesus. (Matthew 18:4,5/19:13)

Share what you can do to help the next generation to come to Jesus at Bethel Church.

4. What would be needed to restore childlike faith? (1 Peter 2:2, Ezekiel 36:26)

() ()

5. Jesus accepts and heals our children. Share how we can lead our children to Jesus and pray about it with one another.